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9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유튜브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복음법률가회,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기동아(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진평연)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5일부터 10월 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단 9월 5일은 오후 2시~4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무료 시청이 가능하며 복음한국,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레인보우리턴즈, ch tv,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일산 제자광성교회, 오륜교회, 파주 참존교회, 은평 성결교회, C채널 등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아카데미 측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악법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의 성문에 세워지려 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깨어난 일부 성도와 국민들이 막아왔지만 2020년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제정 위기가 높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의 겉모습은 '사람 차별 금지'라는 복음과 정의, 인권, 평등이라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자유와 생명을 노략질하는 이리"라며 "동성애와 성전환, 사이비 이단,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 등에 대해 옹호 정당화만 허용되고 성경에 기해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고 했다. 또 "그 결과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죄와 거짓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켜 영생을 빼앗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 발생해 온 교회, 가정, 교육, 경제, 문화, 국가 등 전 영역에서의 재앙적 폐해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맺는 열매를 정확하게 모르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며 "1천만 성도와 5천만 국민이 모두 깨어나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게 되면 대한민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반성경적 반국가적인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저지한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될 것이고, 나아가 다른 나라의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9월 5일 강의에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전 한법재판관)과 김지연 집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가, 9월 12일에는 이상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및 조직신학 교수)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 대표 변호사,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가 강사진으로 나선다.

9월 19일에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 실행위원장)와 박진권 대표(아이미니스트리)가, 9월 26일에는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교수, 바른인권여성연합)와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진평연 집행위원장)가 강사진으로 나선다.

초등생 성관계 조장, 성애 가르치는 여가부 사업 중단 환영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8월 31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사업 중단을 환영한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나다움어린이책' 사업에서 추천된 일부 책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재미있거나' '신나고 멋진 일'로 소개하면서, '하고 싶어진다'라고 표현하여 성관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곳곳에 보여주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대하였고, 지난 8월 25일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 통합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러한 추천도서의 문제점을 항의하자, 26일 여성가족부는 문제가 된 책들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6천여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문제가 된 책자를 회수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김병욱 위원의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를 적극 지지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에는 적나라한 여성 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남녀간의 성관계를 상세한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재미있다, 하고 싶어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남녀의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 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안에 넣고", "빨리 움직이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등의 표현으로 초등학생들의 성적호기심을 자극하여 성관계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현행헌법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성평등을 주장하는 기관과 단체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소위 조기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를 주장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 남성의 50여 개 이상의 제3의 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3의 성을 포함한 성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동성애, 디지성애, 근친애 등은 물론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을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 평소 성평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단체들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개헌을 2017년 시도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개헌대신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성평등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NAP 등 각종 정부정책 등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권인숙 의원이 교육기본법에 포함된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현 정부와 단체들은 성평등을 위한 헌법과 법률 개정이 쉽지 않자,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서 각종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하성문화센터에서 성평등과 동성애 등을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은 국감에서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들은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조기성애화와 성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나다움어린이책' 사업에서 문제가 된 책자를 지금은 회수하였지만, 이들은 앞으로도 유사한 정책으로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체제 개편에 목적이 있다. 사유욕이 강한 인간의 본능을 거슬려 사회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한 이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성욕을 어릴 때부터 무제한 풀어놓아 새로운 사회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8월 26일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된 책들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자, 평소 성평등을 강력히 주장해온 전교조는 물론 한국여성단체연합, 진보당,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이 강력히 반발하며 나섰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행헌법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사람의 성별을 나누고 있다. 또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윤리 도덕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정교모는 건강한 가정이 깨어지며, 건전한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성평등 이데올로기를 강력히 반대한다.

극도의 저출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출산 장려를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이 가능한 가정을 파괴하는 성평등 정책에 앞장 서고 있음은 앞뒤가 맞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현행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에 위반되는 동성결혼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된다. 학업에 힘써야 할 자녀들에게 성폭력 방지와 건전한 성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 대신에 성적호기심을 자극하고 성관계를 조장하며, 학생의 임신 출산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나쁜 성교육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8. 3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법무부의 낙태죄폐지 움직임에 대한 생윤협의 반대성명

최근 법무부가 형법에서 아예 낙태죄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정부입법형식의 형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생명윤리운동을 연합하여 이끌어온 우리 협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불행하게도 헌법재판소가 우리형법상 낙태죄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조만간 법무부측으로부터 낙태죄관련규정의 개정시도가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한 바이다. 하지만, 이제 그 방향의 일단을 접하게 된 우리들로서는 이런 방향 자체가 우리의 헌법을 비롯하여 이 헌법의 구체화규범인 형법체계와 본질적으로 상충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속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염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질서에서 최고의 법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임을 안다. 이것을 보장한 헌법 규정(헌법 제10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법익이다. 형법상의 보호법익체계에서 가장 최고의 법익은 인간의 존엄성의 실존적 토대를 이루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인간가족의 연대적인 생명의 숲을 구성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형법상 중요한 법익체계는 이 생명법익을 중심으로 한다. 이 생명법익을 더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자유와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소유권과 재산 같은 개인적 법익 및 사회적·국가적 법익 같은 보편적 법익이 가치우열에 따라 유기적으로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형법전은 살인죄 규정과 낙태죄 규정을 두고 있다. 현실적 구체적인 개인의 생명의 시작이 진통시라는 전제에서 우리형법은 영아살해죄(제251조)를 그 보호의 출발선으로 삼는다. 이것은 산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특별한 동기 상황을 고려하여 보통살인죄(제250조1항)에 비하여 책임감경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의 단계인 수태에서 출산의 진통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태아의 생명이라 하여 낙태죄의 규정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법익은 수태에서 출산을 거쳐 사망에 이르기까지 낙태죄규정과 살인죄규정 두 가지 기둥에 의해 떠받혀져 형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법무부가 낙태죄 개정에 조심스럽게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20년 8월 26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목양時事

이효상 원장 // 근대문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까칠하고 예민한 그대를 위하여

당신은 까칠하고 예민하다.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뭘 그리 아는 게 많은 건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꼭 옳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대를 보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말없이 받아주면 안되는 걸까. 그대를 향해 다른 이들이 '너무 계산이 빠르다'고 하는 말은 칭찬이 아닌 것 같다. 매사에 시념이 너무 강해 무슨 장사꾼이나 판사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어려운 시대를 다들 힘들어할 때, 까칠하고 예민하게 행동하면 자신이 돋보이고 남들이 알아준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런 '관계'에 대해 20여 년 가까이 강연을 해왔다. 1천여 회가 넘는 강의와 수많은 모임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난다. 직장인들도 만나보면 '일' 보다는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고백을 듣게 된다. 많은 주부들의 심각한 고민도 가사 때문에, 경제문제보다도 가족과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 때문이란다.

특히 코로나로 근접 접촉없이 소통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관계형성은 어떻게 변할까?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대면접촉들이 없어져서 좋다는 견해도 있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빠지게 한다. 직접 만나지 않으니 상호간에 공감이나 연결성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동안 비접촉 방식은 대면을 보완하는 정도의 교류 방식이었고 사람들은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전히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선택의 차원이었던 간접적인 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안전함과 편리함의 이면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관계 단절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변화와 적응의 갈림길에 서 있다.

모두들 '관계'가 서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하다보니 고독과 소외감 속에 괴로운 인생을 산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관계 갈등 때문에 괴로워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항상 있고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다. 어찌보면 서로의 생각과 문화, 살아온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요인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흔히들 착각한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다른' 이를 나처럼 변화시키려 욕심내지 말고 '다른 이'는 어차피 '나와 다른'이다. 그 다름과 싸우면 평생 불행하다. '다름' 그 자체를 인정해야 행복해진다.

이런 문제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나 자신과 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사실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건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인 누구에게나 특유의 까칠하고 예민한 기질(아성?)이 있다. 그래서 부부나, 자녀, 타인과의 관계회복이 더디고 어렵다. 어떻게 이런 관계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까칠하고 예민성을 줄이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예민함의 성격적 특성은 감정이 침체되고 불만이 많아지는 우울증 증상과 비슷한 결과를 낳기에 예민함만 잘 다스린다면 우울증 치료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 다수가 "성격이 예민한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지만, "우울한가"라고 질문을 바꾸면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50대가 되면 남녀 모두 갱년기와 맞물려 까칠함에 예민함이 더 해진다. 서양문화에 비해 감정표현이 많지 않은 한국인의 경우 감정의 찌꺼기가 쌓이다보니 특성상(우울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몸이 아픈 신체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이런 예민하거나 까칠한 기질이 어릴 때 형성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꾀배기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미움이 배배 꼬여 있다.

타인과의 관계가 그렇다. 말을 놓으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이 풀리게 되고 예의를 벗어나 무례하게 된다. 서로 친하다고 가볍게 상대하게 된다. 좋을 때야 웃지만, 감정이 틀어질 때는 상대 눈치 안 보고 욕설을 내뱉는 일도 어렵지 않다. 말과 행동은 한번 거칠어지면 되돌려지지 않는다. 거친 말에 중독되면 어지간한 욕설이나 육두문자로 표출된다. 이런 현상은 그 사람의 '열심'의 단계를 넘어 '욕심'이 밑바닥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평상심을 잃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적 욕심'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겪는 갈등은 이런 '평상심의 상실', '사적욕심', '양심의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동시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보다 '언어의 폭력성', '말의 횡포', '예절의 상실', '관계의 단절'에 빠져 들게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비난, 비평, 불평 세 가지만 안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링컨의 성공비결은 절대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이나 판단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다.

흥미로운 것은 말이란 것이 그렇다. 불특정 다수앞에서 뒷담화로 남을 비난할 때는 우월해지는 것 같은 쾌감마저 느끼겠지만, 나는 저 사람을 맘대로 비난해도, 반대로 내가 비난을 들으면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처음처럼 서럽고 억울하고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남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숙한 관계를 위해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까칠하고 예민한 그대가 범하는 실수는, 타인의 인생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주워들은 몇 마디로 타인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도, 그걸 듣는 사람도 모두 거칠다. 그래서 정작 전해져야 할 진심도, 고쳐져야 할 문제의 본질도 사라지고 서로의 가슴과 머리에 분노의 성냥불을 확 집어던져 불길을 일으키고는 서로를 홀라당 태워 죽인다. 우리 모두는 타죽지 않으려고 누군가 성냥불을 탁 그었을 때, 파르르 떤다. 두려운 것이다. 그로 인해 뒤끝이 생긴다. 혹시 당신은 뒤끝이 작렬하지는 않은가. 잘못이 있다면 조용히 물어보고 충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자.

까칠하고 예민한 우리는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사과'도 '용서'도 잘못한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아주 낯설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것도 여전히 어색하다. 우리들 속에는 화 잘 내고, 원망 잘 하고, 남 탓 잘 하고, 남 핑계 대는 거 좋아하고, 쉽게 서운해 하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닐까. 자유니, 평등이니, 공동체니, 책임이니 하는 것을 몸에 익힌 지 고작 75년이기 때문일까.

까칠하고 예민한 우리는 한 번도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 없다가 이제 겨우 내 집 갖고, 내 차 갖고, 내 가족 부양하며 안정된 자리를 갖고 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잠시만 한 눈 팔면 누군가 빼앗아 갈 것 같은 불안과 경쟁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뜨거운 피. 그래서 상대의 눈치보며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러면서도 남의 일에는 사사건건 간섭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부르르 주먹 쥐고 뜨거운 분노부터 보여주는 마치 자신의 몸을 부풀려 크게 보이려는 개구리처럼, 건드리면 가시 확 세우는 고슴도치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거짓으로 고발돼 왔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 거짓말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도 않은 죄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거짓고발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와 싸워야 하고 대답할 자가 없는 상태에서 논박해야 한다. 내가 파멸 당하면 그것은 비방 때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선량한 사람을 죽게 할 것이다."

까칠하고 예민한 그대가 보다 성숙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로 나가려면, '이권'을 나눠먹는 그런 야바위꾼수준이 아니라 칭찬과 경청, 상대방을 세워주는 참다운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칭찬은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천박한 아첨이나 비위를 맞추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진심에서 나오는 격려와 관심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성숙한 삶의 표현이다.